대전 공전학보

제12호
1972년
8월28일 월요일
<월간·비매품·1971년 4월 7일 창간>

발행인 정 용 식
편집인 및 주간 송 영 준
편집장 고 희 정
충남 대전시 삼성동 309번지 우편번호 300
대전공전학보사
전화 (교환 ② 5001~5005)
인쇄 회상사

THE DAE-JEON GONG-JEON HAG-BO
Published by Dae-jeon Technical Junior College, Dae-jeon, Korea

한여름을 삼킨 1학년 해양훈련

초강국민학교생들이 베푼 무용, 합창도 있었고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충북 영동군 심천수영장에서 해양 훈련이 실시되었다.

학생간의 협동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리는 이 연례행사에 정 용식 학교장을 비롯 지도 교수 15명과 1학년 252명이 참가했다. 한편 훈련 기간 중 배구대회, 축구대회, 씨름대회, 기마전 등의 종목이 있었고 영동군 옥계리에 있는 옥계폭포를 돌아보았으며 초강국민학교생들이 베푼 무용, 합창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3면 참조)

학보편집 담당자 회의

8월 7일 경기공전에서 열려, 본교도 참가

8월 7일 오전 10시 경기공전에서 전국 전문학교 학보편집 담당자 회의(가칭)가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학보편집 담당자 회의에 참석한 학교는 대전공전, 경기공전, 영대공전, 동양공전, 통영수전, 상주농전 6개교이며 학보담당 교수 편집담당 학생 등이 참석하여 각 학교 학보사의 상황과 현 문제점에 대해 약 2시간 30여 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의는 7월 중순경 경기공전이 각 전문학교의 학보편집 담당자 회의의 필요성을 느껴 각 전문학교에 대해 서신으로 문의 조사한 결과, 모두 이 회의의 개최를 염원함으로써 경기공전 주최로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하계 휴가 중이라서 서신 연락을 받지 못한 전문학교가 있어 참석한 학교가 매우 적었다.

한편, 이 회의에서는 이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전국 전문학교 편집 담당자 회의의 결성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대구 영대공전에서 다시 만나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의된 결의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전문학교에 있어서의 학보사는 부내 기관의 하나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2. 각 학보는 학원의 목탁으로서의 직능을 발휘해야 하며, 신속, 공정, 정확하게 취재 보도함으로써 학교홍보, 학혼상담 및 건전한 학풍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3. 게재원고 또는 편집형태에 대하여서는 각 학보 편집방침에 크게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어떤 종류의 간섭도 이를 거부한다.
4. 학보는 한 학년도에 적어도 10회 이상 발행하도록 노력한다.
5. 학보비는 각 학교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르기로 한다.
6. 각 전문학교 학보사간에는 각종 정보, 기사, 논문, 작품, 편집기술 기타의 교환을 적극화시키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한다.

1972년 8월 7일
전국 전문학교
학보편집 담당자 회의

산악부 지리산 종주등반

본교 산악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하계원정 지리산 종주등반을 마쳤다.

강 영식(기4A) 군을 leader로 한 이 지리산 종주등반은 첫째, 적설기 종주등반을 위한 정찰등반 둘째, 록·크라잉 훈련 셋째, leader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등반 코오스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일 : 서대전역출발—구례구—구례읍—화엄사—빈집터
13일 : 빈집터—노고단—임걸령—반야봉—토끼봉—총각샘
14일 : 총각샘—연화천—지보공—벽소령—선비샘—세석
15일 : 세석—연화봉—장터목—천왕봉—제석단—하동바위—백무동
16일 : 백무동—덕전—마천—남원
17일 : 남원—서대전역 도착

2기분 납부금
9월 15일까지 납부

서무과에서는 1972학년도 제2기분 (72. 9. 1~73. 2. 28) 납부금을 9월 15일까지 조흥은행에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금액은 1~3학년이 15,550, 4학년 20,600, 5학년은 24,200으로써 납부금 고지서는 개학날인 9월 1일 내의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 고지서에는 수업료, 실습비,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의 금액이 씌어져 있다.

성적표와 2기분 납부금 통지서 발송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치룬 제2차고사의 성적표와 72학년도 제2기분 납부금 통지서를 같이 동봉, 8월 9일 하계휴가 중에 있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발송하였다고 교무과에서는 밝혔다.

햇빛속의 출진出陣

쏟아지는 화살을 받으며 우리는 용약 기술 봉사 출진의 대열을 가다듬었다. 안산(案山)만큼 크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약>

농촌기술봉사성료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에서——

하계휴가를 이용한 농촌 기술봉사 활동이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8월 16일 낮 12시 20분에 추부면 신평리 사무소에 도착한 봉사반은 신평리장 최 원식 씨의 출장관계로 바로 봉사 활동을 펴지 못하고 저녁 늦게서야 성대국민학교 교실 한 칸을 빌어 여장만을 풀 수 있었다. 이튿날 6시에 기상하여 2시간 동안 아침 봉사활동을 한 다음 8시에 조반을 먹고 다시 오전 일과를 시작했다.

오후 1시에 중식을 한 다음 다시 뜨겁게 내리쬐는 더위와 벗하며 봉사반은 각각 맡은 바의 봉사 활동을 오후 7시까지 활발히 전개했다. 전기과 봉사반은 이 상태(전기) 조교를 선두로 230여 가호나 되는 마을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옥내 배선의 점검과 철사로 이은 개폐기(두꺼비집)의 퓨우즈 교환 또는 위험한 곳에 테이프 붙여 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한편 토목과 봉사반은 송 기범(토목) 조교를 선두로 해서 하천 500여m를 측량해 주었다.

그리고 하천 측량을 토대로 하여 설계한 제방공사 설계도는 귀교해서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 농촌기술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한 전기과 봉사원은 전체 부락이 거의 퓨우즈 대신 철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전선이 낡은 곳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기가설을 한 지가 7년이 되었다는 부락이었는데 부락민들의 올바른 전기 지식이 없어 기술봉사에 앞서 보다 올바른 지식의 보급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한 토목과의 한 봉사원은 30도급 오르내리는 뜨거운 폭양 밑에서 땀흘린 보람이 있어서 예정한 일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고 흐뭇해 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전기과와 토목과의 지도 담당교수와 봉사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기과

담당교수—이 상태 조교
봉사반원—조 성우(전3A), 동 경익(전3A), 권 용혁(전3B)

⊙토목과

담당교수—송 기범 조교
봉사반원—장 일홍(토4B), 오 천환(토4B), 이 종진(토3B), 장 권호(토3B)

새마을 운동 마스게임 열려

새마을 운동 마스 게임이 8월 7일부터 8일까지, 14일부터 16일까지 2차례에 걸쳐 본교 대강당에서 실시되었다. 8월 7일에 실시된 마스 게임은 국제문화협회 주최, 한국교육무용총연합회가 주관하여 초·중·고교 여교사를 대상으로 열렸다.

또한 14일~16일에 열린 마스 게임은 한국무용교육연구회 주최, 한국교육무용총연합회가 주관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초·중·고교 여교사를 대상으로 열렸다. 이 새마을 운동 마스 게임은 문교부 새 교육과정에 의한 추기 운동회에 대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천향우회 서천군청에 국기함 100개 전달

8월 7일 오전 11시 서천향우회는 국기함 100개를 각 부락에 전해 달라고 서천군청에 전달했다.

서천향우회는 서천중학교를 졸업하고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구성된 것이다. 방학 전부터 최 창휘 회장을 비롯한 9명의 회원들이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하자고 결의, 학비를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방학동안 손수 만들어 전달한 것이다.

이날 서천 군수는 향우회 회원에게 치사의 말을 하며 격려해 주었다.

<서천향우회 회장인 최 창휘(기3B) 군이 서천군수에게 국기함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호 사설은 국어과 **송백헌** 부교수가 집필한 것임.

교수논문 원고마감

9월 5일 박두

11월 말경에 발간 예정인 제10호 교수 논문집의 원고 마감일이 9월 5일로 박두했다. 편집인 및 발행인을 정 용식 학교장으로 한 이 논문집은 4·6배판으로 부수는 약 250권이 발간될 것이라 한다.

제7회 기능경기대회

9명 참가 예정

앞으로 다가올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에 출전 예정인 각과 선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계과 : 판금—이 정호(기3B), 선반—김 성철(기계과 조수)

▲전기과 : 옥내배선—김 성중(전4B), 동력배선—남 진우(전4A), 노 황래(전4B), 전자기기조립—안 재혁(전4A), 조 성우(전3A), R. T·V 수리—권 용혁(전3B)

▲건축과 : 미술도장—배 육현(전4)

임 대철(전기)교수 대통령 표창받아

제4대 교무과장을 역임했었고 또 전기과 주임교수를 맡았었던 임 대철 교수가 제27회 광복절을 기하여 8월 15일 과학기술 유공자 표창에서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과학 발전에 헌신하여 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이날 상을 받은 것이다.

원동기 기술협회 충남지부 총회

한국 원동기 기술협회 충남지부 총회가 8월 26일 오전 10시에 본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바캉스를 즐긴 건축과 교수부부

—3박 4일로 제주도 등반—

집안에서 가사일을 돌보고 또한 아이들과 남편의 뒷바라지만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아내를 위해 조금이나마 그 노고에 보답하고자 건축과 교수진들은 제주도를 부부동반하여 등반했다.

8월 2일 박 정원, 임 남재, 송 인춘, 박 갑순, 장 용식, 이 정회 교수부부는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은 다음, 이튿날인 3일에 용두암, 모슬포 해수욕장, 쌍용굴을 돌아 보았다. 4일에는 만장굴, 협재 해수욕장에서 하루를 즐긴 다음 5일 비행기로 광주에 도착, 특급열차로 대전에 도착했다.

또한 송 인춘 주임교수는 버스 속에서의 노래합창, 해수욕장에서의 수영 등이 굉장히 재미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이 하계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건축과 교수진들은 작년 1월부터 1년 반개월 동안 교수 한 분에 대해 3만원씩의 저금에 들었었다 한다. 내년 가을에는 1박 2일 예정으로 설악산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용두암에서 부부동반 포즈를 취했다

하계휴가 중

도서관 개관

도서관에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도서관을 개관했다. 하계휴가 중 학생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고 또한 알뜰한 하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서의 관외 대출을 허용,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개관하고 일요일은 휴관한다고 하는데 8월 1일 전까지는 도서의 점검, 카드의 정리때문에 부득이 휴관했다고 밝혔다.

뚱딴지

▲5·60년만인가 하는 물난리가 났다. 죽은 사람 실종한 사람이 528명 이재민의 수가 38만 6천여, 재산 피해액은 무려 132억 6천여 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신문사나 방송국 같은 데에서는 구호 금품을 모집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들의 호응열도 대단한 바가 있다. 서독과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도 몇 만 달라씩 보내어 왔다. ▲그런데, 이번 수해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른바 「어어드 크레이즈(Earth craze)」—지구가 미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잇따른 태양의 흑점 폭발, 이곳 저곳 화산들의 폭발, 200년 후에는 다시 빙하기(氷河期)가 닥치오리라고 추정하게 하는 1940년 이래의 연평균 0.6도씩의 냉각등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가 미치게 된, 보다 더 직접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기의 오염에 있다고 한다. 19세기 후반 이래 인류가 대량 사용한 석탄이 내뿜는 2산화탄소가 해마다 두껍게 지표에 층을 이루어 가던 차, 최근 4반세기 이래의 계속된 핵실험에 견디다 못해 지구는 드디어 미쳐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비참한 앞날을 생각할 때, 이번의 폭우로 입은 재해쯤은 오히려 약과일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천재(天災)가 아니라, 사람들 자신이 만들어 낸, 말하자면 인재(人災)인 셈이다. 속담에 『스스로 묘혈(墓穴)을 판다』는 말이 있거니와, 이게 바로 그것이다. 1,000년이나 뒤면 몰라도 아직은 사람은 지구에서 살고, 그 지구는 다만 하나 밖에 없다. 다만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째고 허물고, 더럽히고 그저 제멋대로다. 그러고서 재앙이 없을 리 없다. 참말 무서운 일이다. ▲무섭다는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 끝에, 전쟁도, 호랑이도, 어둠도, 세월도 아니요, 망각(忘却)이라 했다는 동화가 생각난다. 여기, 전쟁보다도 망각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사고 방식에 우리는 저항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주의에 치우친 입장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인간 전체로 볼 때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으랴! 전쟁만 일어나면 인간의 존엄성이 어찌 되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어찌 되는가?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 쳐진다. 더구나 그것이 동족끼리의 골육상잔 이라면 비극의 도는 더하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의 민족적 양심과 지성은 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루하게 끌어오던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은 7·4 공동성명에 힘입어 마침내 본회담 개최로 진전되었다. 비록 수해의 피해는 크지만 무서운 동족상잔의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데에 새삼 우리의 희망과 용기는 솟는다. 하루빨리 수마(水魔)가 할퀸 상처를 아물게 하여 우리의 이념과 제도의 우월성을 저들에게 보여야겠다. 자, 서둘러 의욕의 삽질을 넣자! 아무리 「어어드 크레이즈」라 하더라도 우리마저 「크레이즈」될 수는 없다.

상공부허가

도량형. 계량기. 측간기. 의료기. 물리 화학 } 실험기구
시약. 생물 기구. 신체검사 기구. 기상관측 기구

대전시 원동 36번지
박상회과학상사
박 광 서 (동28회)
전화 ②0924

(사) (고)

본 학보사에서는 동문 여러분께 증정하고 있는 학보가 수취인 직장, 거주지 이동으로 말미암아 분실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여 수취인의 주소를 확인코저 하오니 다음과 같이 수취확인서를 보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립니다.

특히 동문님들께서 지금까지 본 학보를 증정받지 못하신 분은 아래와 같이 주소를 알려주시면 계속 증정해 올리겠읍니다. <구독료 무료>

보낼 곳 : 대전시 삼성동 309번지 (우편번호 300)
대전공전 학보사

우편번호	
주소·직장	
성 명	
졸업회수및과	

토목·건설업
영진건설
사장 이 종 완
대전시 인동 133번지
Tel. ②1247

동창가족을 찾아서

금년에도 하계휴가를 틈타서 본 학보사에서는 동문 탐방에 나섰다. 본 학보사에서 동문 탐방을 연례행사의 하나로 삼음은 선배님들을 찾아 그 성공담과 아울러 여러가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널리 보도함으로써 우리의 알찬 활력소로써 내일을 향한 힘찬 전진의 바탕을 이룩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문 발굴에 한 구실을 하며, 동문 상호간의 근황을 알리게 되며, 널리 선배와 후배, 동문과 모교와의 구름다리 일꺼지 하게 된다면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의 동문 탐방이 이와같은 무겁고 큰 사명이 일마 만큼이라도 달성 되기를 바라며, 여기에 그 대강을 옮겨 보려고 한다. 끝으로, 이번 동문 탐방을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협일을 제처 놓고 시종 진력하여 주신 서울의 **박 성철, 김 영삼**, 대전의 **김 국대, 김 찬호, 박 홍병** 선배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기자: 고 희정, 허 찬, 권 종 주>

만나뵈온 동문가족들

이 의구 〈동27회 건축과: 청구건축연구소장〉
김 국대 〈동29회 기계과: 특수금속 현장감독 동문회 분회장〉
박 홍병 〈29회 기계과: 특수금속 영업과장〉
신 길웅 〈동31회 건축과: 홍일건축사무소장〉
김 찬호 〈동32회 기계과: 특수금속 노조지부장〉
김 석기 〈동36회 토목과: 서울시청 도시계획부 구획정리 2과〉
〈경칭 생략〉

(서울지구)

금년에도 하계 휴가를 틈타서 경인지구 동문 탐방에 송 인순 동창회 간사님, 송 영준 주간 교수님을 모시고 8월 11일 대전을 떠나 서울에 도착한 것은 11시 40분, 이번 탐방으로 되어 있는 홍일건축 설계 사무소장님을 찾았을 때 마침 소장님께서 현장을 돌아보러 나가 계시지 않아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성북구청의 황 인무, 김 정헌, 신탁건축의 이 근복, 제일건축의 이 완규, 서라벌건축연구소의 한 광섭 선배님들이 찾아와 선배님들과 지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장님께서 오후 늦게나 돌아온다하여 서울 시청에 근무하는 김 석기 선배님을 만나뵙기로 하였다.

교훈을 생활의 신조로 삼아

김 석기<서울 시청 도시계획부 구획정리2과>선배님을 찾아

김 선배님께서는 전문학교 4회 토목과를 졸업하고 현 서울시청 구획정리 2과에 근무 중이다. 67년 1월 시청에 근무하여 처음에는 한강개발사업소에 근무 하였다.

◆선배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탐방에 시간을 틈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한강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이곳에서는 주로 한강을 중심으로 그 유역을 개발하는데 도로나, 혹은 교량, 제방둑의 건설을 하며 금년에 약 95% 정도 개발 되었읍니다.

◆구획정리 2과로 가신지는 얼마나 되는지요.

◇작년 10월에 왔읍니다.

◆구획 정리 2과에서 어떠한 일을 맡고 계신지요.

◇영동 신시가지 개발이 주요 사업입니다.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시외로 분산하기 위해서 입니다. 신시가지의 개발면적은 959만평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총공사비 194억원을 들여 68년에 시작하여 75년도에 완성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현재 .약 38% 정도 진척되어 있읍니다.

◆선배님 이제까지 일해 오시면서 즐거움을 느끼신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설계 감독하여 완성된 구조물 위를 지날 경우가 즐겁더군요.

◆생활해 오시면서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들려 주세요.

◇참 좋은 말입니다. 저는 항시 교훈을 생활의 신조로 삼아 모든 일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무슨 일을 해 놓고도 교훈의 자중정진 전용에 비교해서 반성하며 또한 앞으로 실수없이 잘 하려고 노력하죠.

◆몇몇 학생들은 전문학교를 나와서 대학 졸업자들과 동등하게 일하면 실력이 부족 하다고 말들을 하는데 선배님께서 일해 오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에 종사하는데 있어서는 제 생각으로 전문학교만 나와도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설계 경시 대회라든가 혹은 시험에 있어서도 별로 지장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김 선배님께서도 1970년 토목설계 경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편 선배님께서는 후배들에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명랑한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잘 어울려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후배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하며 1학년때 야영훈련이 지금도 생각난다고 말씀하신다.

◆선배님 처음 시청에 취업 하시어 가장 어려움을 느낀 일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처음에 고통을 느낀것은 설계 도면을 잘 볼수 없음이 가장 고통 스러웠읍니다. 아마 이런 것은 학교시절에 현장 실습을 나감으로써 배우는 것이 좋다고 보아요.

<김 선배님 5학년에서 많이 배움이 좋겠다고 말한다.>

김 선배님께서는 낚시와 음악감상이 취미라고 하시며 현재의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고 싶다고 한다. 김 선배님께서는 5학년에서 오랫동안 많이 배우고 사회에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신다.

선배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었지만 제한된 시간에 쫓겨 말씀을 못다듣고 선배님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있길 염원하며 발길을 옮겼다.

소장님께서 현장을 돌아보고 오신 뒤라 더위에 땀을 흘리며 후배들을 만난 그 즐거움의 기쁨을 얼굴에 가득한 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후배로서의 기쁜마음을 표현 할 길 없다. 건축설계 사무소를 경영 하시어서 우리들에게는 여러가지 도움되는 말이 많다. 그리하여 대강 그 말씀을 옮겨본다.

◆이렇게 탐방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몇해 무슨과를 졸업하셨어요.

◇동31회 건축과를 졸업했읍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졸업후 3~4년 동안 성실히 노력

신 길웅<홍일건축 사무소장>선배님을 찾아

◇1965년에 시작 했으니까 금년이 7년이 되는군. 그러니까 내가 대학 2학년때 시작했읍니다.

선배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손수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즐거웠다고 한다. 졸업후 처음에는 나 상진 설계 사무소에 근무하였다가 이 사무소를 시작 하였다고 한다.

특히 신 선배님께서 남들이 놀 때 놀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였으며, 학창시절에 일요일이 있는줄을 모르다시피 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선배님 이렇게 설계 사무소를 차리기는 힘이 들고 또 자금도 많이 들었을텐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와 함께 적은 돈을 모아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빌려서 시작했읍니다. 전화도 남의 집 것을 빌어쓰고 또 노력도 많이 했죠.

한편 선배님 께서는 친구(동창)와 함께 하시다가 친구분도 개업 했으며 현재 5명의 기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신 선배님 오늘도 사업에 여념이 없다.>

선배님께서는 후배들에게 강조하여 부탁하고 싶은 것은 타인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신임을 받아 일하라고 한다. 또한 선배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하기싫어 하는 일을 할 줄 아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웃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선배님 후배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좀 들려주셔요.

◇학교를 졸업한후 3~4년 동안에 전공과목에 대한 기술을 거의 마스터하여 내가 시공방면으로 나갈것이냐? 아니면 설계방면으로 나갈 것이냐? 에 따라 자기의 진로를 정해야 된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졸업후 3~4년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 성실히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아요. 한편 학교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에게 맞는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허영없이 진실되게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줄로 알아요.

이처럼 신 선배님의 업소는 매년 처리하는 건수가 증가된다고 한다.

또한 신 선배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장 실습에 나갔으며 틈만 있으면 배우고 학비를 벌어서 오늘의 영광을 차지하신 선배님의 앞날에 영광이 언제나 하시기를 빌며 석양의 햇빛에 비치는 선배님의 모습을 더 보고싶었지만 아쉬움을 남겨놓고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약속해 보았다. 우리들의 동문이 언제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문님들을 찾아 그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즐겨 받았다.

독서는 과연 필요한가?

사설

제목부터가 자못 진부한, 어느 면으로 보아 「대중가요」 만큼도 공감과 강한 진폭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자체가 서글픈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 요즈음의 학생들, 특히 우리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과연 독서다운 독서를 하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과연 그들에게 독서는 필요할까? 이러한 알궂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남에 이런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독서는 정신 생활의 영양소다』 『독서는 지식의 보고(寶庫)요, 수양의 비결이다』 『독서란 취미의 화원이요, 성공의 비결이다』……등등, 이러한 현학적인 경귀는, 하기야 거의 매달 몇차례 예외없이 있는 강조기간에 쏟아져 나오는 그 숱한 구호에 만성 면역성이 된 요즈음의 학생들에게는 도시(都是) 방향감각을 잃은 반쯤 소란스런 음향에 지나지 않을는 지 모른다. 그것은 마치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어버이의 말씀처럼 필요한 듯 하면서도 따분하고 귀찮은 잔소리에 지나지 않으리라.

사실 매스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본다면 독서하는 사람처럼 멍청하고 답답한 족속은 없으리라. 고작 7·80밖에 못사는 이 짧은 인생 생활에 그나마 많은 시간을 독서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인가? 더구나 아무리 훌륭하고 방대한 문예작품도 짧은 시간의 영화, T·V로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오락성마저 끼어 있어 흥미진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더러 반일 지식의 섭취에 필요한 일이라면 훌륭한 학자들의 유명한 학설도 몇 권의 사전류에 집약되어 있거늘 구태여 독서가 필요할까? 하물며 매일같이 연속되는 강의시간마저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이처럼 말초신경적인 향락주의에만 젖어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 학생들의 일반통념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으랴? 그러기에 대학가 앞에는 서점 하나 존재할 여지가 없이, 느는 것은 대폿집, 빵집이요, 양장점 뿐이며 학교 도서관은 시험기가 아니면 언제나 한산하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빈 책상들이니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것이 과연 학원의 정상적인 상태일까? 굳이 선인(先人)들의 근엄한 독서계칭론을 들출 필요가 있으랴? 바다건너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들의 예를 보자. 그들도 과연 우리처럼 그러할까? 극성스럽게 독서를 하는 일본은 잠시 두고, 우리고장 반 밖에 안 되는 프랑스의 조그마한 도시에 눈을 돌려 보자. 인구 20만의 자그마한 몬페리어에 3층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서점이 무려 40여 개, 거기에는 책을 사려는 사람들(주로 대학생)이 언제나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될 실정이라니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랴? 이 이야기는 최근 프랑스에서 학위를 취득코 돌아온 어떤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한편쯤 우리 나라의 다이제스트 엉터리 지성인들에게 참고 삼아 들려 주고싶은 이야기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대학생활은 「공부하는 방법 (How to study)」을 터득하고 「책 수집의 방법 (How to collection of book)」 (이것은 바로 독서와 직결되는 것이기에)을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양서적 내지 연구서적의 구입은 고사하고 자기가 배우는 교과서마저 구비하지 않고 학교를 마치려는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이 나라의 앞날을 기대해도 좋을까?

한편 우리 학교 처지를 돌이켜 보자.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교에 이같은 이론이 타당할까? 훌륭한 기능을 가진 기술자면 족하지 그 밖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반문할는지 모른다. 반대로 생각하여 보자. 훌륭한 기술자란 결국 창의성을 지닌 사람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꾸준한 연구의 소산이요, 그 연구는 바로 독서에 직결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그 어느 학교보다도 연구열이 왕성해야 할 곳이 바로 이 학원일 수 밖에…… 캠핑도 좋고 방과후 취미에 맞는 운동에 정열을 쏟는 것도 좋고 축제도 좋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구비할 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지성」이다. 그것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적으로 붙는 훈장 같은 것이 아니다. 의외의 사치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꾸준하게 정진하는 독서에서 얻어지는 결과일게다!

모교 교직 생활이 잊혀지지 않아

이 의구<청구건축연구소장>선배님을 찾아

'저녁 해가 질 무렵 청구건축 연구소장님을 찾아 발길을 옮겼다. 선배님의 뒤를 이어 나갈 그 꿈을 마시기 위해 열심히 찾고 싶었다. 그곳이 바로 청구건축연구소. 막 들어 서려니 낯익은 여자분이 눈에 띈다. 바로 양 귀숙 (동40회) 선배님. 얼굴에 웃음을 가득담은 채 맞아 주신다. 마침 소장님께서 탐방의 시간을 갖기위해 대기 중이라고 하시며 반겨 맞아 주신다.

◆선배님 바쁜사업 중에도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선배님께서는 몇해 무슨과를 졸업했는지요.

◇이 정희 선생님과 동기니까 동27회 건축과를 졸업했읍니다.

◆선배님 졸업후 바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교에서 몇 개월 근무하였읍니다. 그래도 모교에서 근무한 때가 잊혀지지 않는군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 이 사업을 시작하였읍니다.

<이 선배님 공사를 맡아 완공중인 건물 앞에 섰다.>

◆모교에서 계시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일이 계시면 들려 주세요.

◇학교 모형을 만들던 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무소에 비치된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 양 귀숙 선배님께 여쭈어 보았다. 양 선배님께서는 기구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처리하는 건수들과 일의 즐거움과 괴로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려주니 여자 선배님으로서 더욱 엄숙함에 머리가 숙여졌다.

◆선배님께서 이곳에 오신지는 얼마나되세요.

◇학교 졸업후 바로 여기에 왔어요.

◆학보를 지금 받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반가와요. 학교의 변하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동문님들의 소식을 알 수가 있어서인지 기다려져요.

이 선배님께서는 안경너머로 싱글 싱글 웃으면서 주간 교수님께서 담임을 하셨다면서 추억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선배님의 옛시절은 매우 재미 있었던 것같이 보였다.

◆선배님 학창시절에 있었던 잊혀지지 않는 추억좀 들려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때 수업시간에 조퇴하고 시내 극장에서 하는 모 여고 예술제에 구경가서 K교수님께 붙들려 웃으면서 혼이 난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이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발전과 영광이 있거라. 우리 대전공전의 동문들이여!

(대전지구)

대전지구 동문 탐방 겸 현장 실습 취재를 위해 8월 24일 오전 11시 탄방동 특수 금속공업주식회사를 찾았다. 더위와 함께 회사를 찾았을 때에는 분회장 김국대 (현장 감독 동 29회) 선배님께서 나오셔서 맞아 주시면서 공장 내부 견학을 안내해 주며 설명을 덧붙이신다. 그래서 궁금한 여러 가지를 여쭈어 보았다.

◆특수금속 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1958년 2월에 창립하여 금년이 14년째 되지요. 부지는 대전이 10,000평이며 서울이 500평 입니다.

◆주요 생산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엔진 베어링을 생산하지요. 베어링의 종류만도 70~100여 가지 있읍니다. 특히 이 회사는 타 공장에 비교하여 정밀하게 물건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장을 둘러 보는데 기계과 4학년에서 실습나온 김 진수, 박 지서 두 형이 나와 선생님을 뵙고 반가와 어쩔 줄을 모른다.

◆이곳에서 실습기간은…

◇8월 10일~25일까지 이니까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금년에 현장실습에 나와서 얻은 보람이 있다면.

◇소결실에서 일하는 것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읍니다. 그리고 시간엄수를 잘하고 있음에 또한 놀랐읍니다.

용광로에서 녹혀지는 쇠와 기계 돌아가는 기계 소음들은 우렁찬 전진의 소리와도 같았다.

열심히 공부, 활발한 학교 생활을…

특수금속 동문님을 찾아

<특수금속앞에 모인 동문님들 맨 우측이 김국대분회장님>

◆이 공장의 기계는 몇 대나 되어요.

◇대전에 130대가 있으며 서울에 30대가 있지요.

◆이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얼마쯤 되어요.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이곳에 재직하고 계신 동문님은 몇 분이세요.

◇현 21명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되는 셈이죠.

마침 임 인식(전무 동 11회)님께서는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만나 뵙지 못했다.

이곳에서는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시합 등을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대공전의 정신과 그 기질이 그 속에 나타난다고 분회장님은 말씀하신다.

◆월 몇 대 정도 분이 생산 되는지요.

◇약 12,000매 분이 생산 됩니다.

◆모교 후배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 한 말씀 들려 주세요.

◇글쎄 언젠가 학교에 가는 기회가 있어 운동장을 들여보니 운동장에 잡초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우리가 다닐 때는 운동장에 잡초가 날 틈이 없이 뛰고 또 제거했는데요.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하고 뛰는거죠.

선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선배님과 오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학보 12호 편집으로 가벼운 카메라의 발길을 옮겼다.

본사: 대전시 탄방 동450~5

검비의 만평

□ 춘추 방학이 어떨까? □

원고 모집

학보 제13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종류: 시, 소설, 수필, 작품사진, 컷.
▲기간: 1972. 9. 15.
▲제출처: 학보사
▲기타: 게재된 원고는 고료 지불함.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치 않음

대전 공전학보사

병역법규해설

병무 시리즈④

병역의 종류

1. 흔히 알기를 병역의무가 현역에 입영하여 복무하는 것 만을 뜻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입영하기 전이나 현역에서 전역(제대)된 후 그리고 보충역 등에 복무하는 기간에 이행하여야 할 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됨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발생되어 병역이 면제될때까지 계속되는데 의무의 종류나 병역면제 시기 등 구체적인 설명은 앞으로 계속되므로 본난에서는 역종의 구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종래의 역종은 현역·제1예비역·제2예비역·제1보충역·제2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 등 7개역종으로 잡다하게 구분되었던것을 70·12·31개정 공포된 현행 병역법에서는 제1예비역과 제2예비역을 예비역으로 제1보충역과 제2보충역을 보충역으로 각각 통합하여 5개역종으로 간소화하므로써 의무자가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분 설명하면

가. 현역: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한다. 보충역에 편입되었던 자가 보결 입영한 경우도 역시 역종은 현역이 된다.

나. 예비역: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친 자와 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전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짐작되나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예를들면 학생이나 무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임용된 예비역의 장교 및 하사관이 이에 해당된다.

다. 보충역: 보충역은 징병 검사를 받은 결과 현역복무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라. 제1국민역: 제1국민역은 18세로부터 입영할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마. 제2국민역: 제2국민역은 징병검사 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이상으로서 역종 구분에 대하여 개괄적인 소개를 하였을 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역관계 술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독자들로서는 충분한 해득은 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본란을 통하여 병무행정 전반이 소개되는 동안에 의무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리라 믿는다.

하계 농촌 기술 봉사 활동 소고(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효용가치와 현실문제 연구가

덜컹대며 아직 포장되지 않은 길을 먼지에 휩싸여 달렸다. 우리 봉사대가 찾고 있는 신평리 마을은 산에 둘러 싸인 넓은 벌판에 230여 호 가량의 대가옥을 갖고 있었다.

시골 향취에 젖긴 했지만 새마을 운동에 의해 어느 정도 변모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도시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푸른 동산 속에 여기저기 묻혀 있는 소들은 시골의 맛 그대로를 연상시켜 주었다.

아침 6시 기상의 고된 작업이었지만 토목과는 마을 옆에 흐르는 하천 축항을 하였다. 전기과 일행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기시설에 대한 위험을 나름대로 제시했고 전기 상식을 다소나마 계몽하였다. 무지에서 오는 피해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소홀한 당국의 시설 및 관리를 철저를 할 수가 있겠다.

<봉사반들이 퓨우즈를 갈고 있다.>

인간 문명의 혜택을 절실히 피부로 느끼며 그 고마움을 입고 있는 전기이지만 그 사용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은 화재, 감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에 단순히 전기에 대한 두려움을 내지는 무지를 지(知)로 끝맺지 못하는 시골의 농민을 설득, 더 나아가서는 자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 시설의 확보에 너무나도 소홀했다는 것은, 시설 확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긴 하지만 무관심 내지는 농민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소치(所致)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그동안 사이비 봉사대들에 의해 농민들에게 많은 오해와 경멸을 남겨서 생기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事前)에 절차적인 문제는 빼어 놓고라도 그 활동 사항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문제와 그 효용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줄 믿는다.

또 한가지 덧붙여야 할 문제는 짧은 기간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봉사대 자체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봉사대가 머무르는 곳의 주민들과 그 활동을 주선해준 소속 관청과의 사전에 짜여진 밀접한 계획하에 봉사대, 주민, 소속관청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다.

봉사대가 도착하여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도 중요한 것으로 믿는다.

지도 교수 **이 상 래**
<전기과 조교>

계획과 책임과 희생

전국적으로 잘 살기 위해 새마을 사업이 한창인 때를 맞이하여, 본교에서도 다소나마 농촌을 돕고자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기술지원에 나섰다.

1972년 8월 16일 안내된 곳은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마을. 군북, 마전, 대전을 가려면 거쳐야만 하는 한 분기점이기도 하다.

한우(韓牛), 포도 등의 시범 부락이기도 하며 군(郡) A급 새마을 지정 부락이기도 하다는 이장(里長)의 말대로 인정독이라도 하듯이 소떼와 포도알들은 제꽃이 변모된 집들과 함께 풍요함을 느끼게 했다.

여장을 풀고 인솔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한 주의 사항과 작업계획을 전달했다. 항상 학교의 명예와 자신의 긍지를 잃지 않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는데 신경을 써야만 했다.

현대 측량은 측량지역의 대소, 사용기구, 사용목적 등에 따라 현지에 임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자가 답사할 때는 상기(上記) 분를 외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인적(人的), 물적(物的), 주민과 관계자들의 반응 등의 요소에도 여유 있는 계획이 요구됨을 재삼 느끼게 했다.

옛날 측량시에는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이 변화된 환경, 지적(地籍)상태 등에 의해 약간의 응용이 서투른 듯 하였으나 그 처방을 알려줌으로 해서 쉽게 익숙해지는 듯했다. (물론 하천 측량계획을 수준측량(水準測量)과 지형측량(地形測量)으로 답사 결과 변경한 탓도 있지만) 봉사를 나온 우리 학생들은 항상 책임자 또는 감독자가 된 입장에서 일해 줄 것을 바랬다.

새벽 여섯시부터 저녁 일곱시가 넘도록 염천하(炎天下)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학생들을 볼 때 성실한 그들의 태도에서 자랑스러움과 함께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했다.

<봉시반들이 도면을 작성하려고 측량하고 있다.>

봉사는 새마을 정신과도 일치하지만 성실한 자기 희생이 아닌가고 생각해 보았다. 기술의 표현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인내력의 경험도 또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자 위하며 학생들에게 알려 주었다.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책임자 혹 입안자(立案者)는 항상 측량을 하기 전 충분한 현지 답사를 하듯 체험에 의한 것이길 바라고 싶다.

지도 교수 **송 기 범**
<토목과 조교>

기술 봉사를 마치고서

농촌에서 자라보지 못한 나에게는 이번 방학 중에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바로 보고 나름대로의 기틀을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여러 모로 나대로의 플랜도 짜보았다. 봉사 지역에서 우리들은 이 사무소 앞에 '대전공전 봉사반'이라는 플래카아드를 달고, 마을 주변을 돌아 보았다. 약 230여 호 되는 이 마을은 거의 빠짐없이 전기 시설이 되어 있었고 새마을 운동에 의해 소박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초가들이 하나 둘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여간 섭섭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개폐기 (두꺼비집)를 점검하는 등 기술 봉사와 그에 대한 계몽 활동을 하였다.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다 보면 반가워 해주고 격려해 주는 고마운 분들도 있어 어려운 줄 몰랐으나 어떤 집에선 관심은 커녕 온 것마저 귀찮게 여기기도 했다.

우리는 개폐기에 용량이 맞는 퓨우즈를 설치했나 보았는데 ·때로는 귀찮아서 철사나 구리선을 사용한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화재가 날 염려가 많았다. 또한 개폐기가 부서졌거나 아예 뚜껑도 없이 위험한 대로 방치한 가정도 다수였다.

전선의 노후 및 배선 관계는 대개의 가정의 시설한지 7~8년이 넘어 피복이 상해 매우 위험한 상태였고 조영재와 전선이 띄워져 있지 않았다. 이번 봉사활동 기간에 느낀 것은 농촌 봉사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잇달아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근시안적인 봉사보다 원시안적으로 그들을 깨우쳐 줄 계몽이 좀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뜻 있는 일들이 좀더 보편화하여 농촌에 산재해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할 수 있으면 유익하겠다고 생각한다.

계획한 만큼의 큰 성과는 못얻었지만 어느 정도 일을 끝맺고 봉사 지역을 떠날 때는 어떤 보람을 느꼈다.

봉사반원 **권 용 혁**
<전 3 B>

카메라에 담은 검게탄 모습들

——계획대로 성황리에 마쳐… 해양 훈련

<지도교수의 호각소리에 아쉬움을 안고 물속에서 나오고 있다.>

<식사당번들이 밥을 짓고 있다. 불땜라, 국끓이라, 말참견도 할라 일일 주부들의 손길이 바쁘다.>

<야! 승리다. 기마전에서 승리의 환호를 지르며…>

<과 대항 송구대회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위의 청소는 게을리 할 수 없다.>

본 해양 훈련의 역사를 보면 1965년부터 본교 1. 2·3학년은 협동과 단결을 고조하기 위하여 야영훈련이 시행되었다. 산간 또는 임야지대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2·3일간씩 텐트를 치고 자면서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던 것을 1968년부터는 해양 훈련으로 바꾸고 1학년에 한하여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본교 특유의 연례행사의 하나다.

이번 해양 훈련의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일(7. 26)…

오전 9시 30분 대전역에 집합한 학생 252명은 교수진과 10시 30분에 경부선 하행 열차에 승차했다.

출발시 대전시내는 돌풍으로 몹시 바람이 일고 먹구름으로 싸여 매우 음산한 날씨였다.

11시 35분에 각계역에 도착하니 이슬비가 내렸다. 막사인 초강국민학교에 도착하여 약 15분 동안 정원모 학생과장의 주의 사항을 듣고 배당 받은 교실에 입실했다. 이어서 취사장 설치, 전등선 가설함.

오후가 되니 내리던 비는 그치고 조금씩 날이 개는 듯했다. 정 용식 학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3시부터 있었다. 학교장 훈화 중 안전한 생활을 하고, 단체 생활인 만큼 질서를 존중할 것이며,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 2 일(7. 27)…

정오까지 2시간 반에 걸쳐 학급 대항 배구 예선전 및 준결승전이 있었다. 전1A와 기1A 결승진출. 오후 2시 수영장으로 나감. 세면시간 전만 해도 비가 뿌려 수영계획은 늦추어 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배구 대회가 끝나자 날이 개어 수영장에 나갔다.

…제 3 일(7. 28)…

9시 50분 운동장에 집합하여 과 대항 송구대회 예선전 벌임. 기계과 토목과 결승 진출. 오후 3시~5시에 수영. 물가에 나와서 과 별·학급별 기마전을 함. 함성과 함께 놓여 떨어 뜨리고 떨어지는 연전을 벌였는데 젊음의 야성을 노출하는 경기였다. 5시 10분부터 배구 결승. 기1A 우승, 전1A 준우승.

…제 4 일(7. 29)…

오후 2시부터 수영. 모래 사장에 모여 씨름대회 개최. 학급당 5명 출전함. 토1B 우승, 기1A 준우승.

…제 5 일(7. 30)…

오전 중에 영동군 옥계리에 소재한 옥계 폭포를 관광했다. 오후 수영함. 6시부터 초강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준비한 무용과 합창 등이 있었다. (본교에서 선물 전달함)

…제 6 일(7. 31)…

해양 훈련 종료일이다. 교실 및 주변 청소를 하고 11시 30분에 폐소식을 가졌다. 12시 초강국민학교 출발, 각계역에서 12시 53분발 경부선 상행 열차에 올랐다. 2시 15분 대전역에 도착 해산했다.

여기서 평상시 하루의 일과표를 본다.

6시: 기상
8시 15분: 점열
8시 45분: 조회
15시 30분: 수영장 도착
18시: 수영종료
20시 10분: 오락시간
21시: 자유시간
21시 45분: 점열 취침
22시: 소등

—농로 개설 유성에서—

방학 첫날인 지난 7월 22일 본교 3학년 150여 명은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다. 타는 듯한 폭서에도 아랑곳 없이 유성면 반암리 승촌 농장에서 농로 개설 작업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2시간만에 완성을 보았는데 농로 길이 400m, 폭 3m 였다.

한편 본교 출신으로 구성된 유공회에서는 참가 학생들에게 손수건을 주고 정 용식 학교장은 빵을 전달해 주었다.

<농로 개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검, 11월 19일로

상공부에서 실시하는 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시험이 오는 11월 19일에 있을 것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과년에는 서울에서 전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지방으로 분할하여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개 도시에서 치루게 된다. 그러나, 면접시험은 종전과 같이 실시된다고 한다.

급우 도와줘

지난 6월 30일 전3B 학생들은 같은 학급의 윤희명 군이 등록금 일부(5천원)를 분실하여 안타까와 하는 것을 알고 성금을 모아 주었다. 또한 강 명식 전기과주임교수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적극 협조해 주었다.

그런데, 윤군은 생활이 빈곤한 편이라고 한다.

▲시설의 보호·관리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8월 23·4 양일간에 걸쳐 '53회 전국 체전 충남 예선 태권도 경기'가 본교 대강당을 경기장으로 하여 열렸다.

그런데, 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대강당은 강단 위의 베이블, 내부의 판자벽이 부서지는 등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사회에 공개·이용하도록 함은 물론 좋다. 무엇보다 본교의 P·R을 위해서도 이롭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의 시설에 손해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대강당을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해 왔을 때, 엄격한 조건을 붙이어 승인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승인 후 좀더 신경을 써서 중요한 학교 시설에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이번의 경우, 유감스럽게도 경기장 (대강당)에 나와 시설을 보호·관리하는 이를 볼 수 없었다.

▲해양 훈련은 이름 고쳐야…

1학년의 해양 훈련이 올해에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충북 심천에서 실시되었다.

떠날 때, 그렇게도 즐거워했던 그들이 돌아와서는 한결같이 실망했다고…. 그들의 말인즉, 이건 '하천 훈련'이지 어찌 '해양 훈련'이냐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강에서 할 것이면 아예 이름부터 고치어 공연히 학생들의 가슴을 울렁거리지나 않게 해 달라는 하중(?) 섞인 호소.

▲개학일 기다려 봄직…

7월 21일 종강식을 하고 하계 휴가에 들어 갔었는데,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인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다수. 그중 가장 심한 것은 4학년 어느 반. 그 반은 3분의 2 이상이 불참이었다. 이런 학생들, 그렇게도 성급히 방학에 들어갔으니 방학 동안에 많은 의의 있는 일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모두 그들의 하계 휴가 보낸 주접한 이야기를 들어 볼 개학 일을 기다려 봄직하다.

▲'학교 앞 천천히'의 표지 아쉬워…

본교 앞에 대전-회덕간 도로가 있다. 35m나 되는 넓은 도로라 지금도 자동차의 교통량이 상당하지만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학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도로를 횡단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 천천히'의 표지 하나가 없다. 사정 없이 스피이드를 내며 질주하는 자동차들을 피해 학교 앞 도로를 횡단하려면 아슬아슬한 느낌을 금하기 어렵다.

교통에 관계되는 표지를 어디서 세우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뭏든 제 세우기는 세워야 하겠고, 또 기왕 세울 것이라면 빨리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바른 안경 바로 쓰고 늙어도 밝게 보자!
☆ 기계 검안 시설 완비
☆ 공전 학생 특별 우대
☆ 시력 검안 무료 봉사
국제안경원
Tel. ② 5201~18
중도극장
도청← →역전
중앙극장□
대평회관□ 국제안경원◆ □도매시장

고급 인상 사진
각종 사진 인쇄
백 화 사 장
대표 박 동 현
대전시 삼성동 364번지
전화 ② 0491

(안) (내) (말) (씀)
금번 당 점포에서는 춘하복지를 다량 구입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염가로 봉사하고자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대정모직 검정 상, 하 2300원 봉사)
감사합니다.
❖ 신사복·남방샤쓰·잠바·바지 전문 ❖
미원 양복점
대전시 삼성동 295번지 (삼성 우체국 옆)
대표 허 소 남

□ 교수 수필

아이스·케이크

이 은 웅

초 여름부터 성행하는 값싼 아이스 케이크를 보면 나는 문득 모정(母情)을 감지한다.

무려 13년간 객지 생활을 하다보니 과연 어디가 내 집인지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었지만 이젠 어느 곳이든지 우리 어머님 계신 곳이 내 집이라고 규정지어 버렸다. 그 이유야 간단하다. 어머님 계신 곳이 오직 내 요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학이나 휴가시면 맛보던 내 고향 어머님의 사랑은 응당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던 나였다. 그러나 요사이는 좀 달라졌다. 더우기 아이스 케이크를 볼 때면 더욱 더 강렬하게 말이다.

왜냐하면 아이스 케이크가 처음 시골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되었으나 최근 몇년전부터 아주 진한 모정을 아이스 케이크로 하여금 느끼기 때문이다.

시골에 계시던 우리 어머님은 요사이 폐쇄되는 5일장을 곧잘 이용 하시었다. 그런가하면 우리는 장보러 가신 어머님을 목놓여 기다리는 것이 또한 일쑤였다. 왜냐하면 장 보고 오실 때엔 늘 맛있는 것을 사다 주셨기 때문이었다.

어느 여름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머님이 시장에서 돌아오시는 그 길목을 따라 마중을 나갔다. 사실 마중이라기 보다는 그 무엇일지 모르는 미지의 것에 대한 「바램」이라고나 해둘까? 그날따라 늦게 어머님께선 시장 바구니를 머리에 이시고 십리(4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 오셨다.

어머님을 마중한 우리는 시장바구니 속에서 먹을 것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것은 좀처럼 나오지않고 그대신 노란 그릇에 뒤범벅이된 고체의 잔흔만이 내와 겠을 끈… 그리고 어머님의 안타까워 하시는 표정만 읽을 수 있었다.

그 당시 우리 남매들은 어머님의 무지하심을 원망했다. 그야 우리 어머님이 훌륭한 학벌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요사이 내 형편상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며, 차츰 주름살이 늘어 가시는 얼굴, 거칠고 쭈글어져 가는 살갗, 검은 얼굴을 대할 때마다, 또는 월급 때면 큰 마음먹고 사다 드리는 고기가 어머님의 손으로 요리되어 어머님보다는 내 입으로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을 실감할 때 나는 아이스 케이크의 사연을 남은신 어머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코 무지해서 만이 아닐 것이라고 빈어지며 이번에 숨은 사랑을 피부로 느끼는 것만 같기 때문이다.

시구 수대로 겟수를 맞추어 처음 팔려나오는 신기한 얼음 덩이를 맛보여 주려는, 또한 기다리는 우리 남매들의 시장 선물로 대신 하려는ㅡ 그 넓은 사랑 때문에 순간적인 바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무한한 감사와 함께 솟구치는 뭉클함을 억제하고 가눌 수가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이스 케이크를 대할 때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일찍부터 모정의 위대함을 감지한다면 훌륭한 학생, 즉 유능한 사회의 중견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한여름도 다가고 아이스 케이크가 사라질 때가 되니 더욱 무엇인가 전규하고픈 나의 뜻을 전하고만 싶어지니……

<전기과·조교>

산 이야기와, 그 노래소리

권 종 주 <전·1A>

짙어오는 산굴이의 영상(嶺上)
가슴 깊이 웅크리고 앉은
그 이야기의, 나래소리。

바람소리 부딪치는 곳,
마음의 노래를 부르며
멀리, 포근히 가라앉은 꿈속
그곳에서

환희의 노래와 이야기는 이어지고
산동성이의 잔몽(殘夢)은 트여진다。

짙게 물든 푸른 그늘의 고향
한 움큼 꽈자를 든 머슴아이의 손,
이제 산지기의 약한 그늘이 된다。

산과 술을 부르던 역사(歷史)는
자재한 시간의 영역(領域)속에 그
리듬을 갈구하며
영원히 손잡아 그늘의 풍습(風習)
을 배운다

산이 있다, 들이 있다, 노래가 있다。
손부비며 슬프던 슬픈 친구를 찾아
나의
착한 이야기와 노래를 부른다。

바다, 해구, 바위, 이것은 잔인해 질 수 있다는 바다를 소녀처럼 델리케트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바다의 자화상을 뜻하는 것 같다. 흰 구름과 갈매기떼를 「묻자없는 묘비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바다의 향수를 만져보는 두보의 시를 옮겨 본다. 「강포에서 한구는 장남을 친다. 그것은 그들의 무타(無他)의 만족」

신입 도서 안내

▲P. S콘크리이트<이동한 저>
▲철골 구조학 <선 병택 저>
▲전 세계 앰프 회로집<차 서욱 저>
▲최신 전 세계 TV 회로 전집—한·일·미·영·독·베—<전자기술사 편집부>
▲형상적 사고<신 봉승 스크린 에세이>
▲수제론<김 기주 엣세이집>

마돈나, 그 생동의 나래를…

□□□□ □□□□
학보사를 나서면서

선 권 수 <전 기자·토 3B>

PROLOGUE

눈 앞에 깃푸른 호수빛 투영이 있었고, 타박을 드문드문 웅크린 어느 언덕 위에서였다. 언제가 자아와 함께 거닐었던 그 오솔길이 끝나는 곳, 전나무, 떡갈나무 우거진 숲에서 나는 새초롬한 눈빛, 시선마냥 집게허는 인생을 반추해 보기 시작하였다.

선택된 삶

어느 「이데올로기」성 관계의 주체나 혹은 객체의 관계에서 존립하는 양질의 운동이 평행을 수반하지 못할 때 인간은 또 하나의 고독을 잡지하게 되나보다. 그것은 괴롬이며, 정신적 고문이며, 그것은 「엘리트」의 고독.

과학의 만능이라는 것이 과학의 부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금세기의 아이러니속에서 이젠 평행의 영원성을 구하기에는 지나치게 퇴곤해진 나였지만 그 삶이 내 크라이버시에서는 어둡고, 로맨틱하고, 다이나믹한 생활관 이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자아(自我)야말로 진리에 대한 결단과 용기를 소유한 결단의 인간ㅡ 혁명적 인간이 되려는 최초이자 가장 마지막의 자아를 구현하기 위한 발버둥인지도 모른다. 자아는 이 지점의 터어닝·포인트에서 지식만을 소유한 신념이 없는 인간, 「햄릿」후예들의 유혹을 굳세게 배격하고, 인류적 「디스토피아 (Dystopia)」가 아닌 이상의 섬, 희망의 섬, 실현의 섬들을 바라며 크나한 「유토피아(Utopia)」를 환생하련다.

생동하는 공간

행동공간은 신체구조에 예속된다. 신체는 만물을 공간화 하는 원초 계기이고 생동하는 공간은 선후(先後)의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린 위안의 생을 필름에 담고 그것을 묵사하며 「메디·고우」와 「N·G」를 부르며 생의 공간을 영위하려는 참신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의 미학

우리는 이 패턴에서 가장 절실한 대외 화합과 의식의 공통적인 초음을 해결하는 기본잎을 안다. 3차원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는 진애(眞愛)란 시로의 정사(情死)가 최고의 미를 구가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예술이 감각적 「이데아」이듯이 사랑이란 감각적, 사고적, 진실적, 아가페적인 「이데아」라고 이름짓고 싶다. 따라서 「키엘케·고올」이 이룩한 올센과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일면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독일의 철인 야스퍼스가 말했듯이 그녀의 무한한 눈을 보며 사랑하듯 『사랑하면서의 싸움』이라는 특이한 관계가 성립되고 그것은 더욱 심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EPILOGUE

이제 「그로테스크」한 침잠은 갔다. 낙엽이 낭자한 가을 밤 같은 때, 하얀 새색씨 볼 여미는 겨울 밤 같은 때, 목타도록 아쉬웠던 인정도, 뼈에 스미는 고독도 한낱 낭만으로 돌린 채 사라져 갔다. 이제 내겐 쿨라톤도, 밀케도, 목메기속의 커피도, 피사로도, 그녀의 시샘하는 눈빛도, 게다가 구노의 「아베마리아」까지도 생에 화안히, 그리고 가득히 즐거움으로 여울져 오고 있다.

박 문 순 <기계과·4B>

초(超) 새벽 바다…빛속의 황자와도 같이 쏟아지는 안개속을 질음마하는 아베크족. 사념일랑 아예 버리고 속세를 떠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음미해 보는 그들. 히피와, 집시와, 바스해진 손과, 홍조 띤 볼과, 그리고 불륨, 그것이다.

해변의 정취ㅡ 그들 미팅속에 한 여름의 밤은 여물어 가고, 맥주병보다 못한 쇠다마의 콧잔등이 합할한 맛과 함께 그 기대도 익어간다. 잠수부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해 본다든가 비키니들의 합주소리 ㅡ 재잘대는 참새 떼ㅡ 또한 일품이라고나 할까?

이방지대 (異邦地帶). 산데리아의 휘황한 조명도 아니고, 방가로의 이색 불빛도, 그렇다서 깜박거리는 칸데라의 낮은 촉광도 아닌 빛.

은하수 시원한 물가에 발을 담그고는 직녀에게 말을 전넨다. 견우가 뭐을 할까, 앞에 앉은 영의 뾰루퉁한 입술이 화폭속의 인물화 같다. 홍조띤 얼굴이 우습다. 빠알갛게 달아오른 불더미를 저시하며 우린 손가락을 걸었다. 그리고는 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를 마악 펴 마셨다. 그 잔칠 맛이 이를데 없다. 애기 꽃을 피우던 북두의 일곱 형제가 졸고 있었고, 압놀 모기가 내 콧잔등을 물고 지나간 것도 그 순간이었다.

다음 제목
「성묘」

모 닥 불

200자 5매 정도
마감 9월 15일
소정 고료 드림

앞 벌 논가의 개구리들이 소란스런 대화들에 열을 더하고, 아카의 키만큼이나 자란 오이 냄새가 짙게 풍겨오는 저녁, 쑥내음 연기속에 멍석위의 아가는 어느새 손가락은 꼽고 별을 센다. 한 아름 된 가슴에 보채는 뾰루퉁한 아가볼에 입을 맞추고, 실연기 여인의 허리에 추파를 날린다. 그것은 십오층, 쑥냇불의 싸아한 향기, 머루랑 달래랑 머금은 아가의 눈빛, 아가, 아가야 우리 입씨름 하는 아줌마의 카랑한 목소리도, 성낸 아빠의 눈길도 모두 모닥불에 살라먹고 우리 반딧불을 잡으러 가자꾸나.

아가야, 부잣집의 청사초롱도 아니고, 네 생일잔치의 은촛대도 아닌 검노란 저 모닥불빛에 얼굴을 맞대고 우리 애길 나누자꾸나. 어머 돌이, 식이, 영이, 숙이 모두 모였네. 그리고 순이도 정이랑도…… 아가야, 아가들과 정답게 둘러 앉아 쑥불 은은한 향기내음 맡으며 밤 꽃 피우는 시간, 우리 마음의 고향, 희망의 고향, 평화의 고향.

아가야, 골목대장 돌이의 얼굴이, 네게 지루럽 하던 순이의 그 얼굴이 새색씨의 볼인 양 빠알갛게 미소짓고 있구나. 아가야, 저 아저씨좀 봐, 그렇게도 험상궂던 얼굴이 너를 보고 웃고 있어.

아가야, 너도 어느새 웃고 있었네. 달래랑, 머루랑, 쑥이랑 타 들어가는 그 소박한 모닥불 연기 속에……

함 명 란 <건축과·1>

소식

●……교수 동정……●

▲72. 7. 25~8. 21 윤영종 (수학·전강) 가족 상면과 관광차 일본에 다녀옴.

▲72. 7. 27 송 배헌 (국어·부교수) 선친 소상.

▲72. 8. 18 송 영준 (국어·교수) 선친 대상.

▲72. 8. 29 송 거범 (토목·조교) 춘당 회갑.

●……회 의……●

▲72. 8. 23~25 대전 실업전문학교서 전국 농업계 전문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회의 개최.

●……학적 이동……●

▲72. 7. 1 김 필수 (기·4A) 군 입대로 휴학.

▲72. 7. 4 정 명희 (토·4A) 휴학 중 퇴학.

▲72. 7. 4 임 승서 (기·4) 휴학 중 퇴학.

▲72. 7. 15 김 상영 (전·2B) 가사 퇴학.

▲72. 7. 21 금 영부, 전 영일, 김 일호, 김 동진, 이윤선, 방 난일. 이상 (기·4B) 군입대 휴학.

▲72. 7. 26 안 석근 (기·1B) 휴학 중 제적.

●……내 교……●

▲72. 8. 2 문교부 엄근현 감사담당관 외 7명 종합 감사반, 본교 전반적인 사무처리 상황을 감사.

●……동문 소식……●

▲곽 상락(동22회)—서울 중구 도동1가 3—106 금성통신(주)로 전근. (22)3151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72. 5. 13. PM5:30 재경 대전공전 건축과 동창회 창립 총회가 열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원단은, 회장:윤석원(동36회), 부회장 이 능학(동37회), 홍 녹표 (동38회)총무:민병헌(동39회), 간사:오 배진(동40회)이 결정 되었는데 이날 참석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윤 석원:서울대학 건설본부(회장) (69)6741~4, 김 평헌:성동구청 언주 출장소 (68)2128, 신 명철:성북구청(93—7415), 이 양우:철도청 공무과(43—0750), 박 신국:성동구 신사동 공무원 아파트 7동4~8, 임 창균:한양대 4(33—4438), 정 광순:부림건설(27—1568~9), 이 능학:서울 철도국 공무과(43—0750), 정 구평:철도청 건설국 건축과(42—0013 교38), 이 영헌:국립건설 연구소 건축기술과(97—0274), 민 병헌:한대 건축과 4년 풀이건축 총무(92—9911), 이 택춘:중대 건축과3, 정 평완:한대3 서울시청, 오 배진:전대3 (간사), 오억근:전대3, 이 승노:국방부 조달본부(42—1035), 이 형복:용산구 용문동38—31(42—7459), 안 순철:전대 생활관 107호(55—0066), 이 창한:서울 명동 2가 54—1, 양 귀숙:서울 청구건축 연구소(93—1091)

●……한국 특수 금속 재사 동문 명단……●

▲임 인식(동11회)—전무, 김 영기(동13회)—총무부장, 김 태호(동14회)—현장반장, 박 인덕(동22회), 신 갑우(동23회), 조 용이(동25회), —서울지점 근무, 조 광호(동28회), 이 영대(동28회), 성 도경(동29회)—광주영업소, 강 희정(동29회), 김 국태(동29회)—현장감독 (동문회 분회장), 박 홍병 (동29회)—영업과장, 허 영찬(동31회), 이 동식(동31회), 김 전웅(동31회), 김 찬호(동32회)—노조지부장, 양 선규(동32회), 박 병구(동32회), 연 진규(동32회), 김 광은(동32회), 박 용섭(동32회), 이 정세(동32회)

●·서울지구동문명단·●

▲황 인무, 김 평헌: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건축과, 이 근목: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동 11의 2 신탁건축(53—8906), 이 완규: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동 2번지 계일건축(52—9397), 한 광섭:서울특별시 종로구 1가 19번지 서라벌 건축 연구소(74—0336), 박 성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7 동보건축설계사무소(93—4181)

●……학보사 소식……●

▲72. 7. 26~29 해양훈련 취재 기자 파견.

▲72. 8. 11, 24 서울 및 대전지구 동문 탐방.

▲72. 9. 1 선 권수(토·3B)기자 편함.

벗은 이야기

글 육 근 웅 <전·3B>
그림 선 권 수 <토·3B>

성냥을 그었다.

선풍기가 고개를 돌렸다.

"훌쭉, 훌쩍.

갑작스레 콧구멍에 들이닥친 연기에 재채기가 나왔다. 성냥불이 시들어 가고 있었다.

눈진물이 솔렸다.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영이 들어 온 것이다.

고개를 돌려 위로 올려다 보았다. 웃음이 이슬에 맺힌 연꽃이듯 영의 입가에 맴돌고 있었다. 머리를 게가 몸뚱이의 콧 방울을 털 때와 같은 모습으로 흔들어댔다. 영은 눈 그렇게 웃을 수 있었다.

앞자리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수런대던 사람들을 비집고 곧 들어올것같은 영에 대한 환상이었다. 짤막한 한마디를 남겨놓고 사라진 것이다. 시선은 영을 생각하는 동안 사라져 버렸다. 찾겨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찻집에는 어둠이 짙게 잠겨 있었다. 낮은 음악이며, 자기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좋았다. 떠나는 혼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가 이야기할 상대가 있었다. 「영이 들어오면 무엇을 먼저 이야기 할까? 안녕? 그냥 씩 웃을까?」 생각에 잠겨 있다 약간 무료해져 성냥을 집어 들었다. 다시 불을 켰다. 착잡할 때면 조금씩 빨아본 것이 이제는 뿌리박혀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입에 대고 있던 것이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무런 생각없이 연기를 품다 흠칫 놀랐다. 희떡얼게 나오고 있는 연기가 외줄기였다. 야릇한 웃음이 입가에 떠 올랐다. 나비는 날고 있었다. 눈 별을 그리고 있었다. 밤하늘에 떠 있는 길, 그것은 별밭의 한 씨앗이라고 생각했다. 별밭이면 눈 이슬이 날갯죽지에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날아오르곤 했다.

이슬은 날개에 하나씩 하나씩 곤곤이처럼 붙었다. 날개의 파닥거리는 속도도 줄어들었고, 눈엔 자꾸 힘이 떨어만 가고 있었다. 나비는 제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밤이면 이슬이 제 잔칫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믿었다. 그것이 낮과 밤의 기온차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나비는 A를 피하고 좀더 작은 a를 택했다. 불나비였다. 온몸이 바짝 바짝 타며 비린내를 낼때에는 더이상 발버둥쳐 보아야 소용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제날의 울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나비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한쪽 콧구멍이 잔뜩한 콧물에 막혀 연기가 외롭게 빠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짙은 외줄기… 솔이은 마을 마다…」하는 싯귀가 생각이 났다. 정말 덤덤한 생각이 난다. 우습다. 이제껏, '사람이 어설프더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하며 지내온 이제 새삼스럽게 시무룩히 공상에나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제기랄, 칠성판이 울어 줄 것도 아니고, 울어봐야 또 뭐 나올 것이라도 있나?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떨쳐버리곤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1969년 기능올림픽 지구대회 1등상
1970년 1급기능사(재단) 자격증 <노동청>
1970년 전국 우량상품 콘테스트 천룡상

◎ 대전공전 관계 인사 우대 ◎

화신양복점

대 전 역 전 통 (Tel. ②1013)

대 표 이 병 용

한국 출판 협동 조합 대전 공급소, 대학 및
전문학교 교재 완비, 최대의 특별봉사가격 판매

文 化 書 籍

대전시 중동 28 (제일은행 뒤)

T. ②—3743

대 표 백 윤 흠